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주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던 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다 [누가복음 15:1-7]

설교자: 마티아스 샷트 (Matthias Schat)

1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2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4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5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하며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왕의 옆자리에 앉아 식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왕이십니다. 그 분께서는 죄인들을 부르러 친히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잃어버렸던 자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1, 논쟁

오늘 설교본문은 예수님을 둘러싼 논쟁들을 부각하면서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맞이해 함께 식사하신다고 원망하였습니다. *"2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복음 15:2). 그 당시 세리들은 도둑이나 반역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부도덕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율법을 준수하는데 굉장히 엄격하였고 세리나 죄인들과 절대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는 모습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사역을 '의인들을 부르는 것이 아닌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정의하셨습니다. *"32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32).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들과 같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들이란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이것을 알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함께하는 성만찬이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2, 이야기

예수님께서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분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예로 들어 왜 자신이 죄인들과 교재하며 식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십니다. 그 분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에서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인지"라는 반문하는 형식으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 중 어느 누가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겠습니까? 대답은 당연히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라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예를 사용해서 자신이 정확히 어떤 일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하실 일을—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방황하는 백성을 찾아나서는 목자로 부르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11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찌라 13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14 좋은 풀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게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풀을 먹으리라 15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찌라"* (에스겔 34:11-16), 이 비유는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 길을 잃고 상한 죄인들을 찾으시는 분이심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 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잃어버린 바

된 우리들을 찾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 구 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성만찬에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 가르침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오늘 설교본문 7절에 나온 비유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7). 그 분께서는 우리 모두는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들이며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 세상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 아홉 명이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회개란 옛 방식에서 완전히 돌이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분께서는 죄인 된 우리들을 찾아 나선 목자 되십니다. 선한 목자를 사랑하고 따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것은 여러분의 회개로 인함입니까? 주님의 성만찬 자리에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왕의 식탁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식탁자리에 불러 함께 식사하시는 그 분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 구세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 채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